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 '꿈앤카페'

전주시, 시청 이어 완산·덕진양 구청 로비에 추가 조성키로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이어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로비에도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꿈앤카페'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로비에 각각 꿈앤카페를 개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꿈앤카페는 중증장애인 취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 또는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 비리스타가 고용된다.

중증장애인들에게 공공영역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들

의 사회참여를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모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돼 5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기준의 1층 북카페를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꿈앤카페'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꿈앤카페는 현재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지회와 위탁을 받아 3명의 중증장애인 비리스타를 고용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 공간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했

다.

실제 시가 지난 1달여 동안 꿈앤카페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50여명이 이용하고 일일평균 41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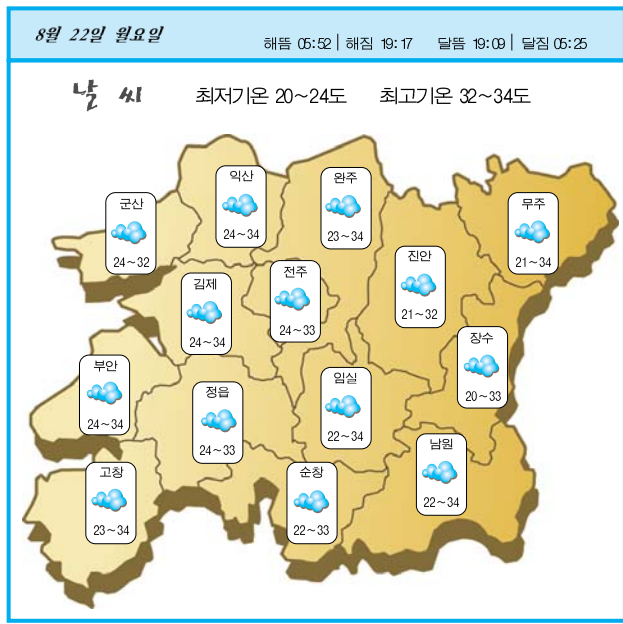
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의 경우에도 각각 500여명과 4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민원업무 등을 위해 구청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각각 일일 500명에 달해 꿈앤카페 운영상 무리가 없는 만큼 추가 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꿈앤카페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관청은 일자리가 공공영역에서 제공되고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시청 꿈앤카페가 점심시간 등에 판매가 집중되고 중증장애인의 작업능력 등 특수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 비리스타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영재기자



미꾸라지 준비됐나? 지난 19일 오전 어느 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아프리카 5개국 직업교육과정 전문가 전북교육청 방문

김승환 교육감 면담 도교육청 직업교육 현황·계획 청취

공고인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5개국 직업교육과정 전문가들이 전북교육청을 방문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엠마뉴엘 마디탈바 암바 암바공고인주공화국 직업교육부 차관 등 아프리카 5개국 직업교육과정 전문가 연수단은 오는 23일

도교육청과 전북기계공고를 방문해 직업교육 현황을 시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1년부터 유네스코에 1천만 달러를 신탁, 보츠와나, 콩고민주공화국, 말리위, 나미비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사하라 사

막 남쪽 5개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역량 개발 사업을 지원해 왔다.

엠마뉴엘 마디탈바 암바 암바공고인주공화국 차관 등 5개국 10명은 23일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도교육청의 직업교육 현황과 계획을 청취하게 하게 된다.

또 점심 식사 후 오후에는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전북기계공고를 둘러보며

학교 현장에서의 직업교육 상황을 시찰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국내 초청 연수 일환으로 추진됐다"면서 "이들 방문단은 전주 한옥마을을 탐방한 후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직업교육과정 개발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 법전문원, 모의행정심판 대회 '최우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후원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국민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문원 학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예산에서 국가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유공자', '외사상자', '노동조합설립' 사건을, 본산에서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을 제시해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의 보호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그간 갖고 있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산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제 주는 인용' 탑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로 판단한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 경연이 펼쳐졌다.

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문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전북대팀이 논리력과 이해력, 해결력 등이 매우 탁월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8개 법전문원에서 26개 팀, 18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7월 예산을 거쳐 전북대 등 6개 법전문원 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고민형기자

전주대 '부동산자산관리대학원' 호남권 최초 개설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전북의 금융허브 발전과 부동산 제테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자산관리전문과정을 호남권 최초로 개설한다.

1년 과정으로 50명을 모집하며 원서접수는 이달 31일까지다.

커리큘럼을 보면 부동산자산 관리실무와 리츠의 이해와 운용사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동산경매와 부실채권(NPL) 융합투자기법을 배우고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현장답사도 진행한다.

강의는 부동산관리 전문 CEO로서의 품격과 교양을 갖추고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과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강사로 김영표 국토정보공사 사장 고종안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최경주 미래에셋대우증권 대표 등 업계 전문가와 문화예술인들이 나선다. 수료생에게는 한국부동산자산관리학회의 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국내 유일의 부동산자산관리 전문자격증(KPM) 취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부동산 관련 세무 법률 관리 등에 관한 무료 컨설팅도 지원한다.

심봉희 행정대학원장은 "부동산은 물론 증권, 금융 등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운용 수익 창출 테크닉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2017 WUJU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